

다시 하나 되는 광주·전남...‘통합의 길’로 가자

1986년 이후 40년 세월 각자도생·경쟁만
민선 광역단체장 정치적 갈등·반목 점철
季정부 ‘5극 3특’에 地選은 절호의 기회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행정통합 ‘올인’
시·도지사 후보들도 일제히 “통합” 공감
2026년 ‘궁극적 대통합’ 향한 출발점으로

1986년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벌써 40년이 흘렀다. 전남도 행정 편제에 있던 광주시는 1986년 직할시 체제로 전환됐다. 행정적으로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로 나뉘어졌지만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관련기사 3·8면

그러나 1996년 민선자치제도 부활 이후 광주·전남은 미묘한 정치 공학 구도 속에서 경쟁 관계로 변질됐다. 민선 광역단체장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며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고착화됐다. 상생과 동반성장을 요원했고 시너지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 사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끊이질 않았다.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을 둘러싼 양 지역 간 민심 이반, 혁신도시·한국에너지공대 유치 경쟁, 공항 문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다행히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을 위해 손을 맞잡으며 상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제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엔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올해 상반기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은 이제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전략에 대한 광주시·전남도의 밟 빠른 대응책이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에 맞춰 전국적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 통합 논의를 선도하고 나섰다.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화됐다.

이제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18일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제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치리질 올해 6·3 지방선거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분수령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행정 통합에 뜻을 같이 하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금 최적기”라며 통합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강 시장과 김 지사는 2일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뒤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진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다른 시·도지사 후보군도 시기와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년, ‘한 뿌리’였던 광주·전남이 다시 하나 되는 판을 깔아야 한다.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을 넘어, 궁극적인 통합의 길로 가는 출발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각자도생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치권이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지역 정치권이 올해 출범할 특별광역연합을 마중물 삼아 2026년을 광주·전남 통합 추진의 원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역민의 시선이 6·3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붉은 말의 기운으로 광주·전남 대도약을
붉은 해가 얼굴을 내미는 순간 토종말의 숨결이 새벽 공기 속에 흰 안개처럼 흩어지며 병오년(丙午年) 2026년 광주·전남의 하루를 깨운다.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견디며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온 제주마의 단단한 모습같이 광주·전남 지역민의 묵묵한 인내와 진취적 기상이 겹쳐 보인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행정통합과 5·18 헌법전문 수록,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의대 신설 등 광주·전남의 산적한 과제들이 막힘없이 진행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제주=조영권 기자

2026

새해특집

지면안내

광주·전남 통합 시·도지사 후보 입장 ► 3면
地選-광주시장·전남지사 누가 뛰나 ► 4면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누가 뛰나 ► 5면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 7면
지역 대학 탐방-동신대 ► 10면
병오년 말띠해 새해 설계 ► 11면

장애인공단광주지부 ► 15면
광주동성고 야구부 ► 16면
병오년 국운·띠별 운세 ► 20·21면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주매일신문 임직원 일동



붉은 말의 기운 가득한 힐찬 새해 福

지역민과 함께하는 광주은행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도
변함없이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은행

